

전북자치도의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5명 선출

기획행정위원장 - 최형열
농업복지환경위원장 - 임승식
경제산업건설위원장 - 김대중
문화안전소방위원장 - 박정규
교육위원장 - 진형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는 27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5명을 선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진형석 교육위원장,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는 27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5명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 중 기획행정위원장에 선출된 최형열(전주5) 의원은 의원 총 40명 중 36표를 얻어 선출되었으며, 농업복지환경위원장에 선출된 임승식(정읍1) 의원은 38표, 경제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된 김대중(익산) 의원은 38표, 문화안전소방위원장에 선출된 박정규(임실) 의원은 37표,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진형석(전주2) 의원은 38표를 얻어 선출되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100년을 위해 총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농업, 복지, 환경 분야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힌 뒤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되

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견제와 균형,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는 민생경제에 도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한 상황으로 도민을 대신해 전북 경제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며, "도민들의 한숨과 절박함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의 녹록지 않은 상황을 의원들과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이제는 문화로 먹고사는 시대로, 문화하기 가장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도민들의 행복

을 보장하는 안전문화 역시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형석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 발전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초석이며, 동력이고 미래 비전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정당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기반으로 집행기관과 협치를 이루는 위원회가 되도록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한편 도의회는 28일 제4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만호 기자

'최신 기술의 흐름에 올라타라'

전북자치도 '6월 소통의 날' ...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 특강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민선8기 2주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향후 2년 동안 전북 발전에 직원들의 역량 발휘를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6월 소통의 날'을 개최,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혁신 도정상 시상 및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 6월 소통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민경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초빙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최 부지사는 "민선 8기 2년간 낮은 가능성에도 끊임없이 도전하여 특별자치도 출범부터 역대 최대 기업유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등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었다"라며,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이다"라고 격려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 "이제 민선 8기 2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의 기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민경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초빙교수가 '기술의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민 교수는 "최신 기술의 흐름에서 이제 AI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챗 GPT 등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라

며, 이러한 AI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대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하고 있는데, CES에 가면 최신 기술적 변화의 흐름을 비교하고 알 수 있게 되어 미래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될 수 있다"며, "전북에서도 이러한 최신 기술 흐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4년 2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 최우수상에 에너지 수소산업과 새만금 수질개선과 2개 부서, 우수상은 119 종합상황실, 일자리민생경제과, 정책기획관, 기업유치추진단 4개 부서에 각각 수여됐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개최하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전 직원이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 김우민 의원
부의장 - 서동수 의원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5선의 김우민 의원(아 선거구), 부의장에 3선의 서동수 의원(가 선거구)이 선출돼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27일 군산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선거에 김우민 의원이 단독 출마해 재직의원 23명 중 22명이 출석해 찬반투표 결과 찬성 2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과반수를 획득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는 서동수 의원이 단독 출마해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과반수를 획득해 당선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한명숙 남원시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지난 26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3선 의원인 한 의원은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상생 방안을 고민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잇따라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의회 의장, 광역의원 부문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이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의정대상' 광역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국주영은 의장이 지난 17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산 등 생활밀착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의정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평등문화를 확산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환경과 농업 사회경제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의제발굴을 해왔다. 국주영은 의장은 특히 지난 2022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최초 여성의장으로 선출돼 도의회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국외연수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방의회 혁신에도 앞장섰다. 국주영은 의장은 "의정대상 수상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성실하게 지역밀착 생활밀착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황배연 김제시의회 부의장, 기초의원 부문



김제시의회 황배연 부의장이 지난 26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선정하는 우수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의정대상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황배연 부의장은 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의원 개개인이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황 부의장은 '잼버리 파병으로 인한 폭력적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안', '전북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 등을 시민을 대변해 중앙정부에 관철시키고자 노력했으며 '미래 농업 경쟁력 인프라 구축 제안',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김제시의 내실 있는 준비 촉구', '조례 입법 평가 제도 도입 제안' 등 김제시의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배연 부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을 해왔는데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7일 전주 데어호텔에서 열린 '2024년 성장사다리 신규기업 지정 및 최고경영자 혁신포럼'에 김관영 도지사가 신규지정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성장사다리 신규기업 57곳 지정 · 최고경영자 혁신포럼

전북자치도, 인증서 수여... '혁신과 기업과 정신' 초청강연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캠텍종합기술원은 27일 전주 데어호텔에서 '2024년 성장사다리 신규기업 지정 및 최고경영자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에 포함되는 풀용, 도약, 선도, 스타, 글로벌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신규지정 기업 57개사에 대해 지정서가 수여됐다. 전북자치도에서 주관하는 풀용·도약·선도기업은 올해 188개 기업이 신

청해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현장 및 발표심사를 거쳐, 5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53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은 2월 14일부터 지난해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 18일 최종 수출지원협의회 심사·의결을 통해 4개사를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205개 기업에는 연구개발(R&D), 사업화 지원, 마케팅, 컨설팅 등 111억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경영안정자금 상환과 이

차보전 우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대학교 박희재 교수의 '혁신과 기업과 정신'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강연이 이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역점 시책인 1기업-1공무원 전담제, 킬러 규제 혁파, 노사화합 모범지역 선도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선택직불제 종류에 전략직불제 등 포함

민주 윤준병 의원, 선택직불제 확대 · 개편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

터의 표준화를 비롯해 통합검증체계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등을 위해 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3.1조원으로 2년간 확대된 예산

은 0.7조원에 불과해 이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전략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확대해 직불제 예산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직불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